



Report 사회지표 || 2021년 11월 18일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케이스탯

2021년 11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긍정, 부정평가 공방 치열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우위 지속
- _ 정부 신뢰도 : 긍정평가 소폭 하락세 보여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한다’ 소폭 상승세 꺾여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지속 우위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줄어들 것’ 소폭 증가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우위 지속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흐름 다소 낮아져
- _ 주식 가격 전망 : 상승, 하락 전망 팽팽

■ 11월 특별지표 : 불안관련 국민의식

- _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72%
- _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가장 높아
- _ 불안감, 여자 30대 가장 높고, 남자 50대 가장 낮아
- _ 불안감 높은 지역, 서울과 PK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11월 5일(금) ~ 11월 7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8\%$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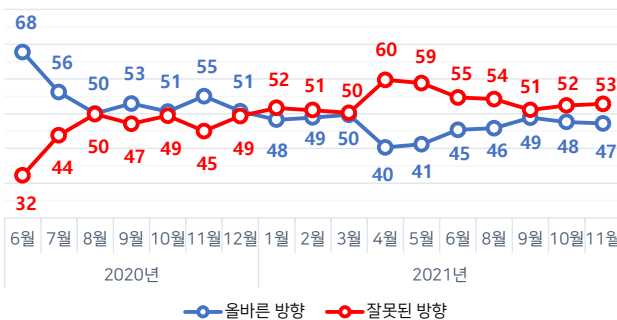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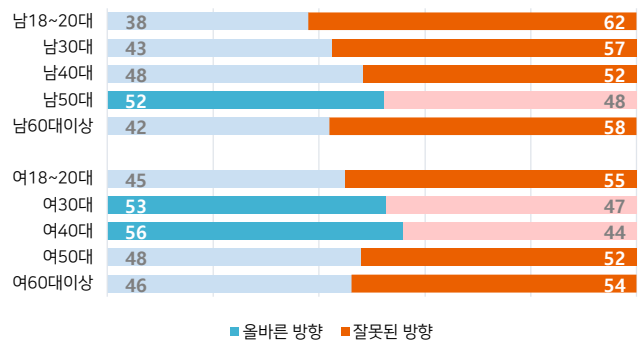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긍정, 부정평가 공방 치열

-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국민평가는 세 달 연속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의견이 맞서는 양상을 보임
 - 11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47% vs '잘못된 방향' 53%로 10월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냄
- 계층별로 '올바른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여자 3040세대 △호남 △진보층 △화이트칼라 등임
 - 긍정, 부정의견이 비슷한 계층은 △충청권 △은퇴.무직자 △이익중시 중간층 등임
- '잘못된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4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5060세대 △서울, 경기, 인천, TK, P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학생 △개인이익 중시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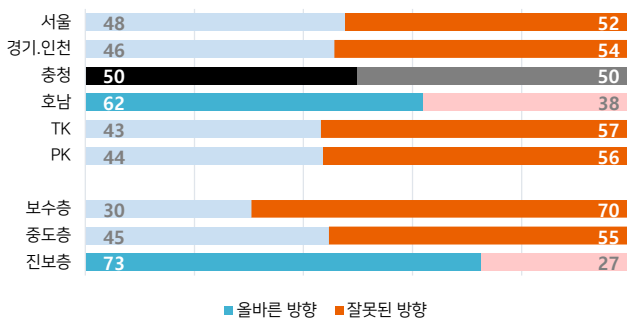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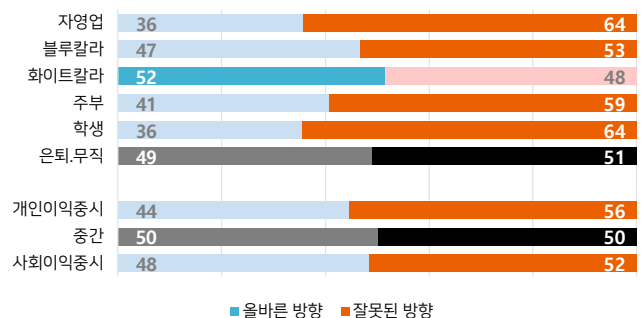
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단위:%)



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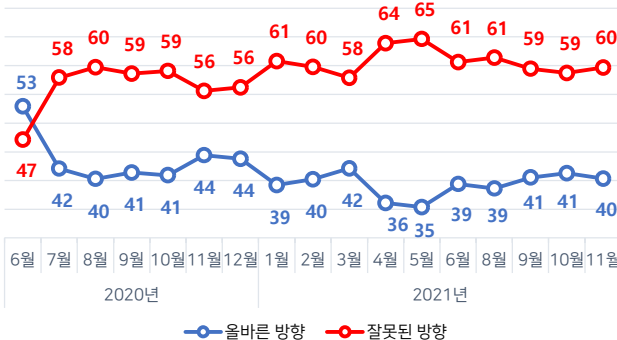
Kstat Point

- ☑ 4월 재·보궐선거 이후 매달 소폭 상승하던 긍정평가 여론이 9월부터 횡보 또는 하락하는 모습임
- ☑ 향후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를 전망할 때, 부정평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 계층별 여론을 살펴보면 부정평가 여론이 우세한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 긍정평가 여론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여자 3040세대, 호남, 진보층, 화이트칼라층에 그침
- ☑ 다만,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살아나고, 국민적 만족감이 높아질 경우 긍정평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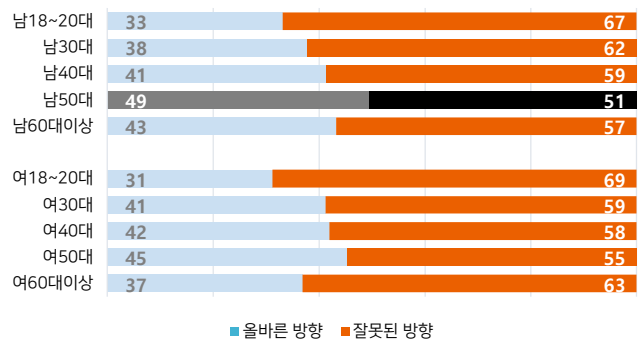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우위 지속

-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여론은 2020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이 우위를 보임
 - 11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40% vs '잘못된 방향' 60%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고,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과 진보층에 그침
 - 남자 50대는 긍정평가 49% vs 부정평가 51%로 의견이 팽팽함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보수층 △주부,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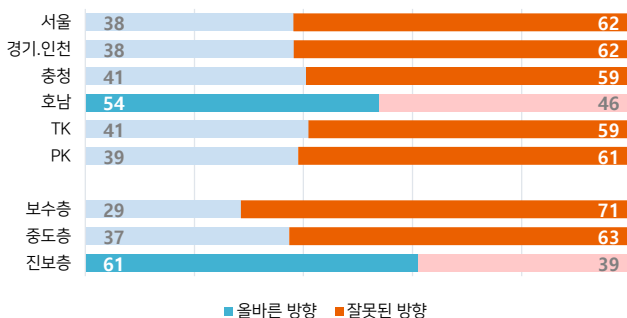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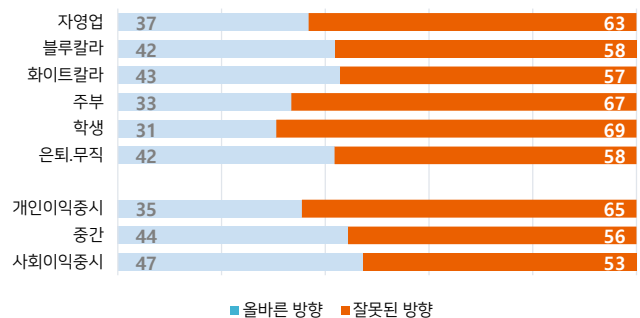
11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11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11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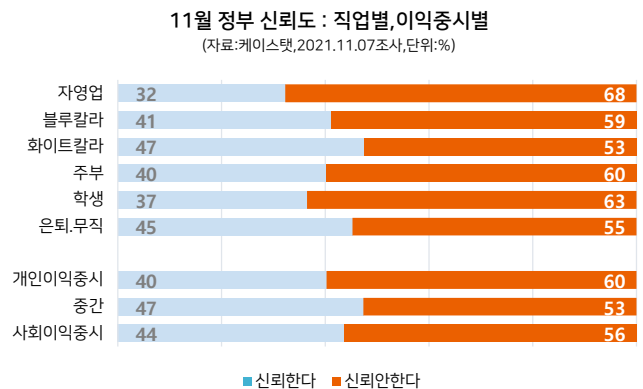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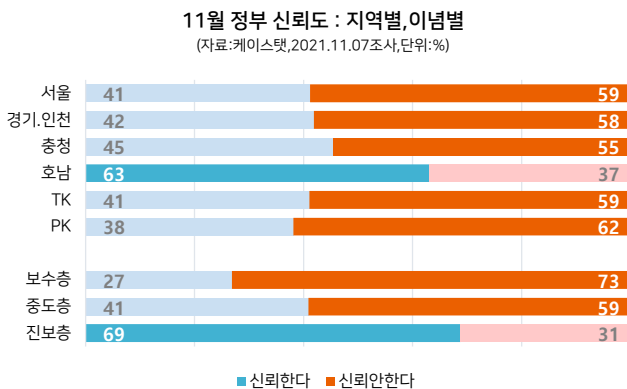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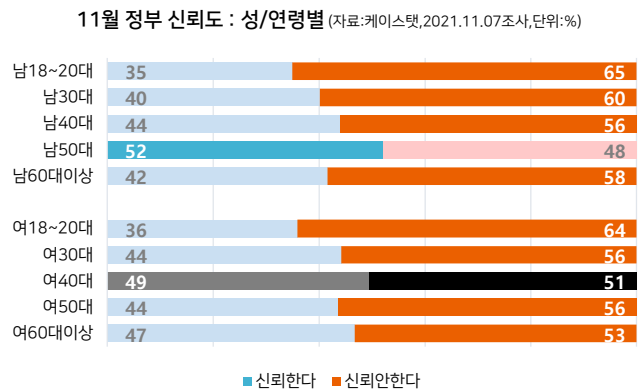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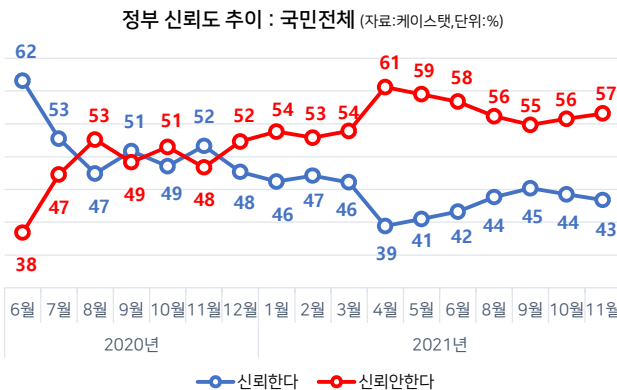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세계경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양적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부실화 위험 등으로 회복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음
 - : 세계경제 흐름과 동조화되어 있는 우리 경제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회복세가 주춤함
- ☑ 여기에 우리나라는 10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경제 불안감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임
 - :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경제적 기대감이 그나마 부정평가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됨
- ☑ 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역시 '위드 코로나' 시행 본격화에 따른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 하락 요인이 중첩되면서 횡보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신뢰도 : 긍정평가 소폭 하락세 보여

- 정부 신뢰도 역시 지난 4월 이후 매달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었으나, 9월을 기점으로 재차 하락세로 돌아서는 양상임
 - 11월 정부 신뢰도는 43%로 전 달에 비해 1%p 하락에 그쳤으나, 상승세가 꺾인 모습임
- 계층별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서울, 경기.인천, TK, PK △보수층 △자영업자, 주부, 학생 △개인 이익중시층 등임
-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호남 △진보층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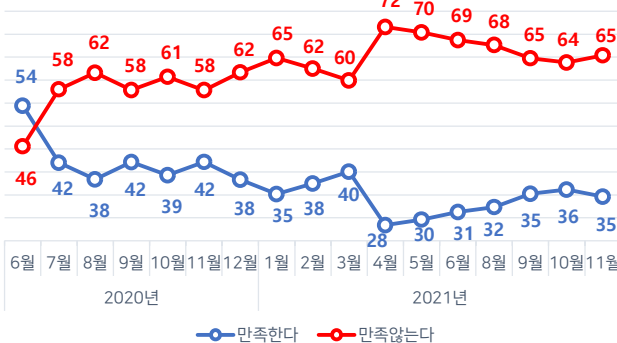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던 정부 신뢰도가 9월을 기점으로 횡보 또는 하락세로 전환됨
 - : '위드 코로나' 시행이라는 긍정 요인과 '가계대출 억제' 및 '요소수 대란'이라는 부정 요인이 혼재된 결과로 보임
- ☑ 이렇듯 부정 요인이 더 많지만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지 않고, 차기 대통령 선거로 관심이 전환된 결과로 분석됨
- ☑ 이러한 흐름에 따라 12월 정부 신뢰도는 횡보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 현 정부에 대한 관심 보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후보 지지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후보 지지율이 역으로 현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각종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상승하고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 정부 신뢰도 역시 상승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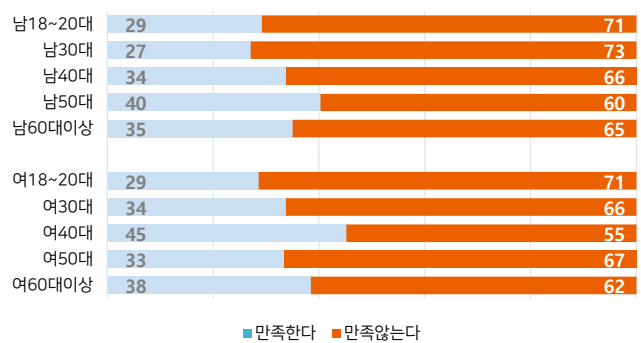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한다' 소폭 상승세 꺾여

-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갖는 국민여론이 확고하면서도 지속적인 가운데, 4월을 기점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소폭이나마 상승하던 흐름이 꺾임
 - 11월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 달에 비해 1%p 하락한 35%를 기록, 그간의 상승세가 멈춤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호남과 진보층에 그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18~20대 △충청 △보수층 △자영업, 학생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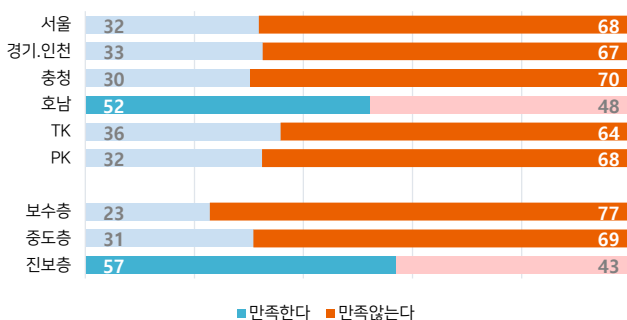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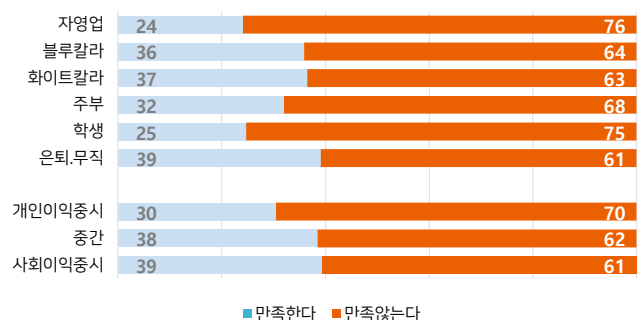
1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1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1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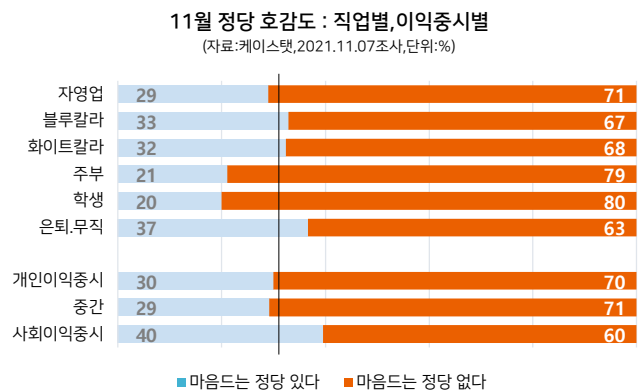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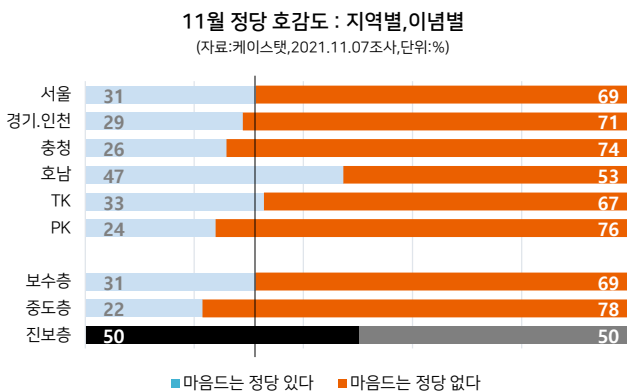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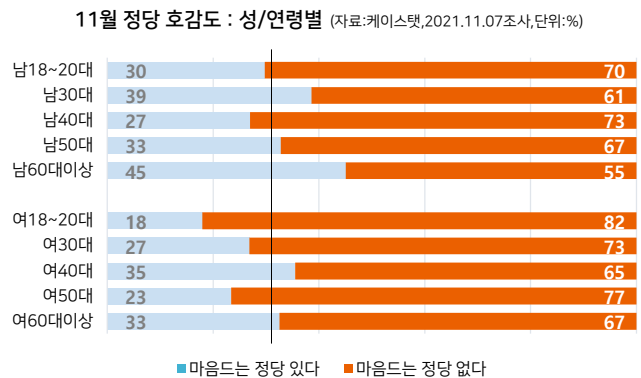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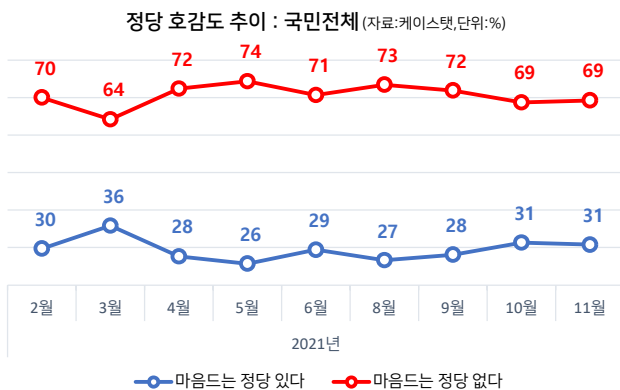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당초 11월 정부 정책 만족도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소폭 상승세가 멈췄는데, 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기대어 시행된 '위드 코로나' 조치 이후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국민적 기대감이 낮아진 결과로 보임
- ☑ 12월 정부 정책 만족도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인지, 다시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인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조치를 통해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책 만족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지속 우위

-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국민여론이 확고한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하고 있음
 - 11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는 의견은 31%이고,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는 의견은 69%에 달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함
 - 진보층은 유일하게 '있다'와 '없다'가 공히 50%로 팽팽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없다'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2030세대, 여자 50대 △충청, PK △중도층 △주부,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있다'는 의견이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60대이상 △호남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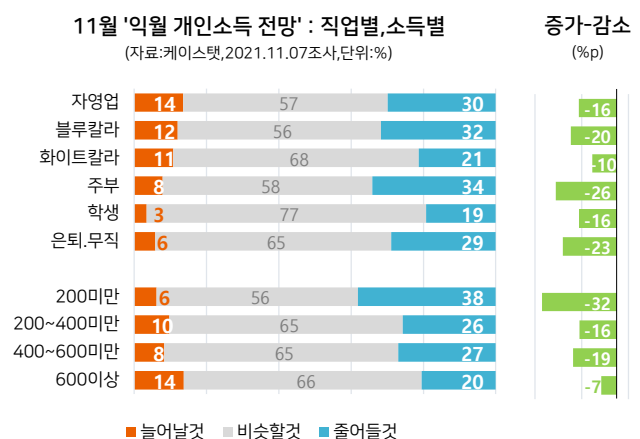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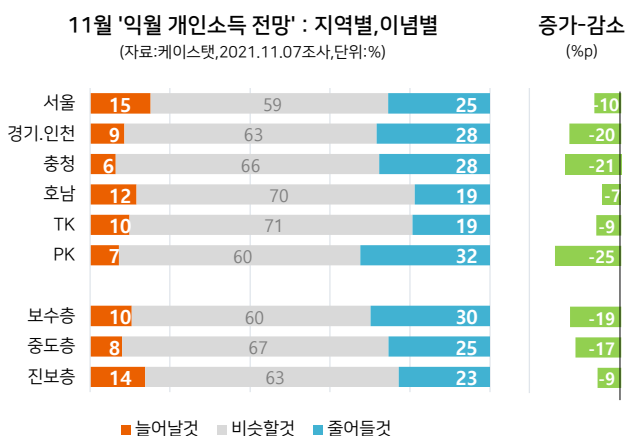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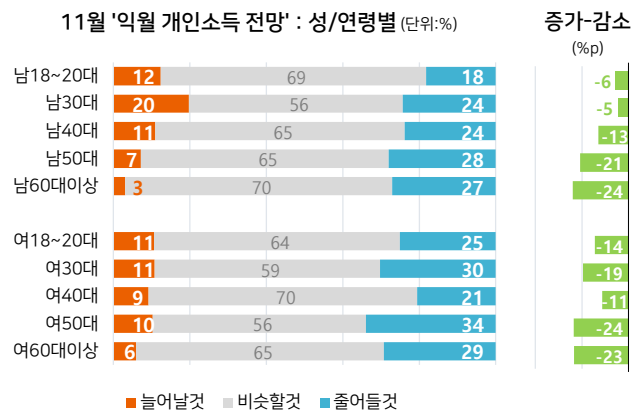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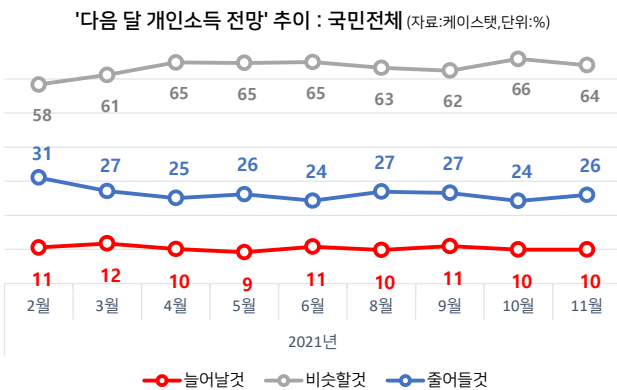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그간 정당 호감도 추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유일하게 변동폭이 큰 계층은 '진보층'임
 - : 진보층의 월별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수치는 다음과 같음(7월은 정당 호감도 조사가 없었음)
 - : 2월 50%, 3월 55%, 4월 50%, 5월 39%, 6월 46%, 8월 43%, 9월 44%, 10월 48%, 11월 50%
- ☑ 진보층은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목표하는 경향이 강한데, '정당 호감도'는 불안정한 모습임
 - : 이는 민주당 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확신이 취약한 결과로 보임
- ☑ 이에 비해 보수층은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는 여론이 일관되게 높음
 - : 즉,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권교체를 위해 지지한다는 '전략적 지지' 태도가 뚜렷함
- ☑ 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 행보와 무관하게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행보에 따라 등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줄어들 것' 소폭 증가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은 조사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 달에 비해 2%p 하락한 64%이고,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26%,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10%로 조사됨
- 국민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전월 대비 2%p 상승한 -16%p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마이너스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경기.인천, 충청, PK △블루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서울, 호남, TK △진보층 △화이트칼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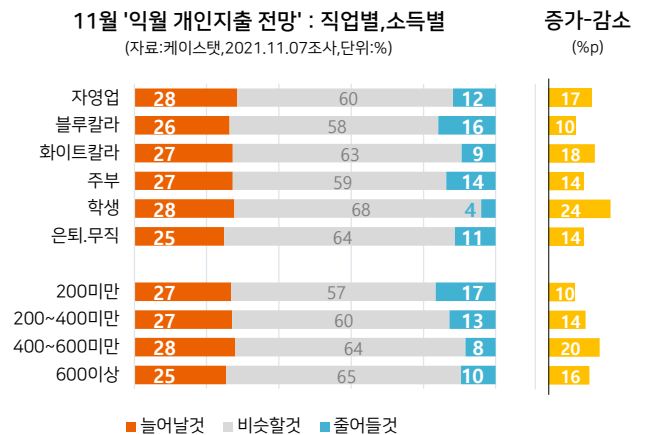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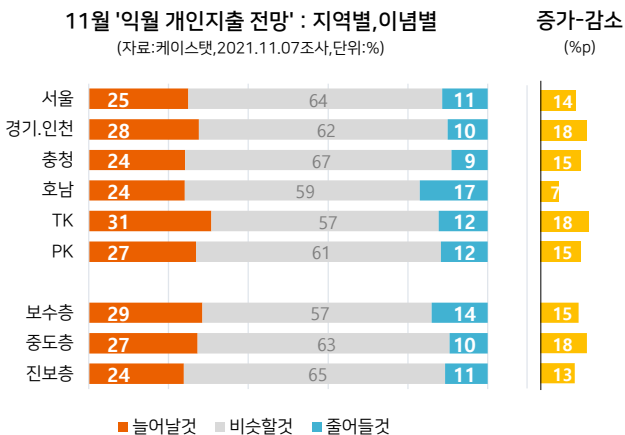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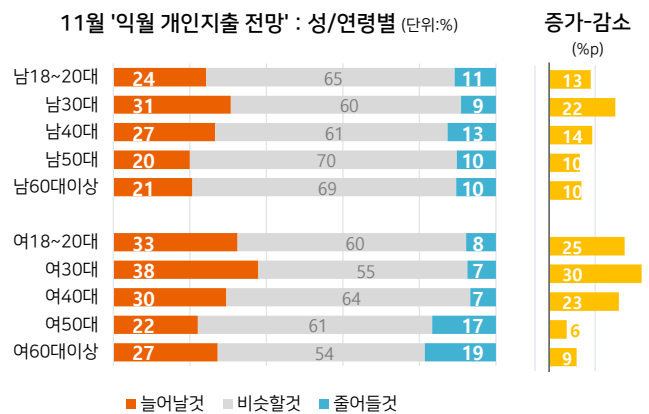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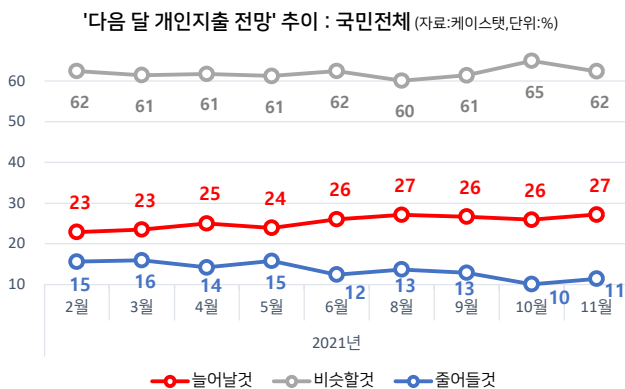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당초 11월 개인 소득 전망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부정적일 것이고, '위드 코로나' 시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함
 - : 조사결과, 국민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부정적 전망 의견을 표함
- ☑ 12월 개인 소득 전망 역시 위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국민 반응에 따라 긍정/부정 전망이 갈릴 것으로 보임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우위 지속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소폭 감소하고, 대신 '늘어날 것'이 소폭 증가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월 대비 3%p 하락한 62%를 기록했으며, '늘어날 것'은 27%, '줄어들 것'은 11%를 기록함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16%p로, 전 월과 동일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늘어날 것 - 줄어들 것)가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차이가 큰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2040세대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플러스 수치가 적은 계층은 △여자 5060세대 △호남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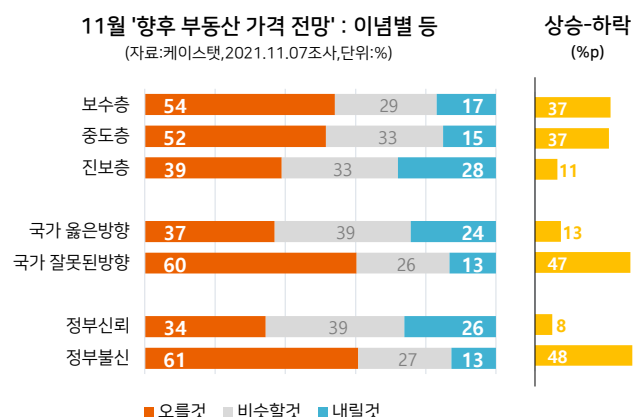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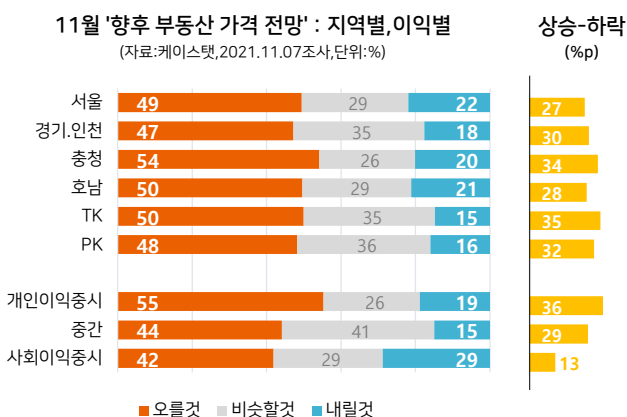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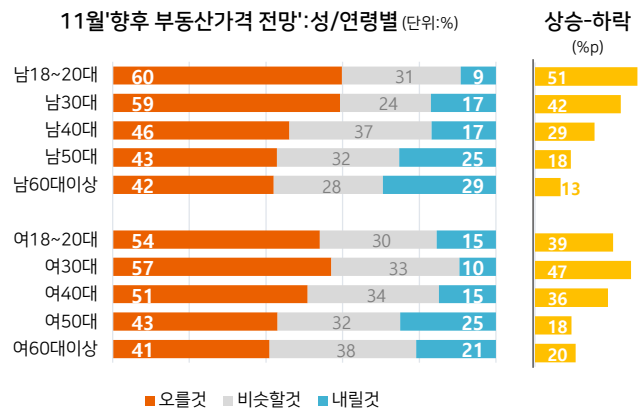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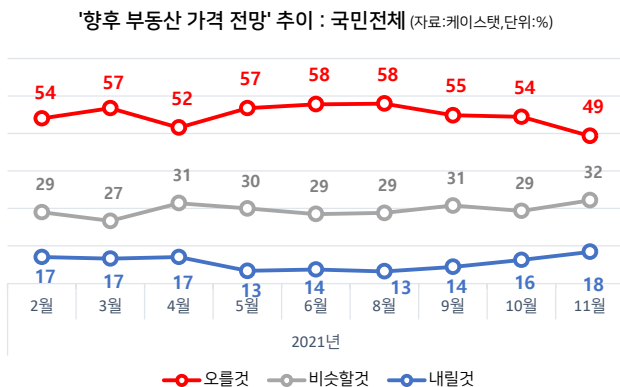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금까지의 '다음 달 소득·지출 전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임
 - : 먼저, 2030세대는 다음 달 개인 소득과 지출 모두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절대적 또는 상대적), 5060세대는 소득과 지출 모두 적을 것으로 예상함(절대적)
 - : 또한 소득이 높으면 다음 달 개인 소득과 지출 모두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절대적 또는 상대적), 소득이 낮으면 소득과 지출 모두 적을 것으로 예상함(절대적)
-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30세대는 비교적 소비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고, 저소득층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부동산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흐름 다소 낮아져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50% 밑으로 하락함
 - 11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49%이고, '지금과 비슷할 것' 32%, '지금보다 내릴 것' 18% 등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 - 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해 여전히 부동산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남
- '차이'의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40세대 △개인이익 중시층 △보수층, 중도층 △국가 '잘못된 방향' 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임
- 상대적으로 '차이' 플러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사회이익 중시층 △진보층 △국가 '옳은 방향' 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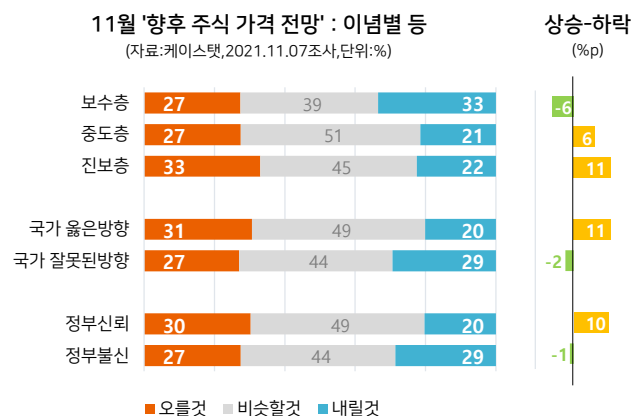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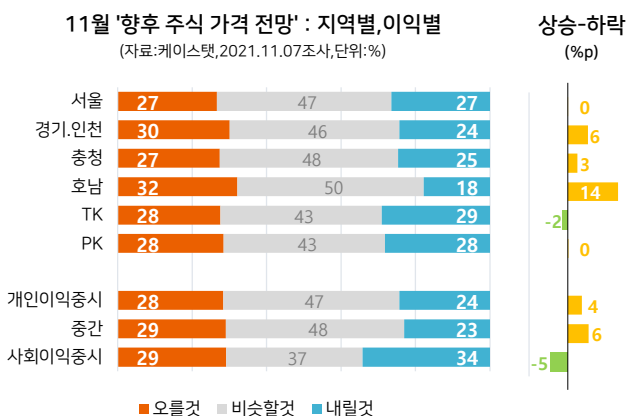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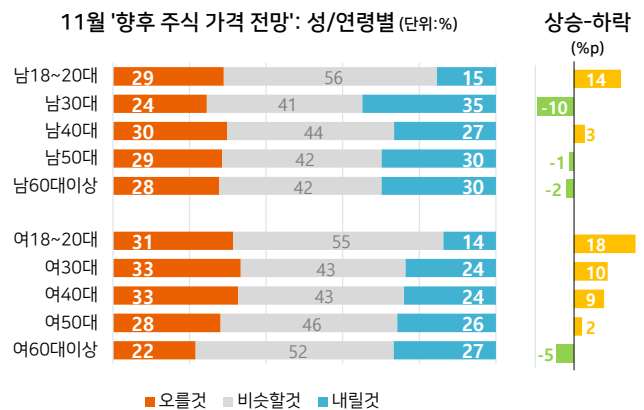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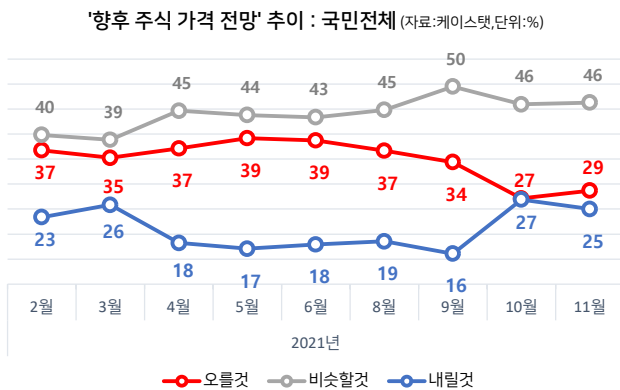


Kstat Point

- ☑ 부동산 가격 전망은 조사 이후 '상승 전망' 여론이 50% 이상이었으나, 11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하회함
- ☑ 현실 통계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 1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0.88% 올라 9월(0.92%)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됨
 - : 여전히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 폭이 축소되면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 한편, 정치적 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달라지는 양상은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함

□ 주식 가격 전망 : 상승, 하락 전망 팽팽

- 주식 가격에 대한 국민 전망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상승과 하락 전망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임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46%로 높고, ‘지금보다 오를 것’ 29%, ‘지금보다 내릴 것’ 25%를 기록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계층별로 상승, 하락 전망이 다름
 - 지난 9월까지의 거의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상승 전망)했지만, 10월에 이어 11월도 계층에 따라 전망이 다름
- ‘차이’가 플러스 수치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40대 △여자 2050세대 △경기.인천, 충청, 호남 △개인이익 중시층, 중간층 △중도층, 진보층 △국가 ‘옳은 방향’ 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임
- ‘차이’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인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5060세대 △여자 60대이상 △TK △사회이익 중시층 △보수층 △국가 ‘잘못된 방향’ 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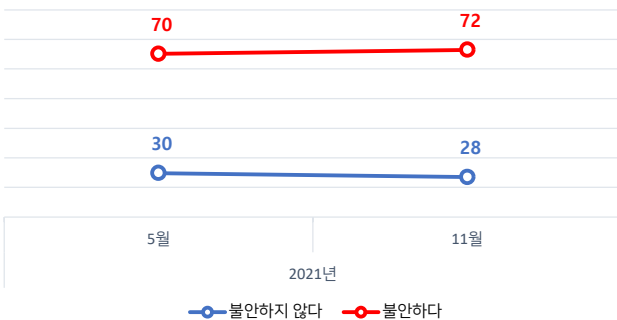
- ☑ 국민여론과 같이 코스피지수는 지난 2일(종가 기준) 3000선을 내준 이후 10거래일째 3000을 회복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음
 - :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이 최근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함
- ☑ 국민들이 재테크에 열중이고, 특히 주식은 접근성이 용이해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지점임

11월 특별지표 : 불안관련 국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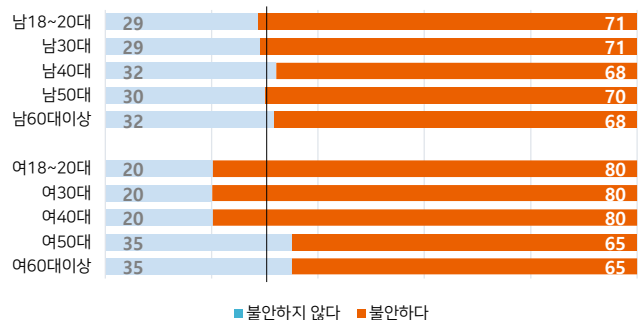
□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72%

-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삶과 미래에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세요?”라는 질문에 ‘불안하지 않다’ 28% vs ‘불안하다’ 72%로 조사됨
 - 지난 5월에 비해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소폭(2%p) 증가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불안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40세대 △서울, TK, PK △중도층 △자영업, 블루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6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5060세대 △충청, 호남 △진보층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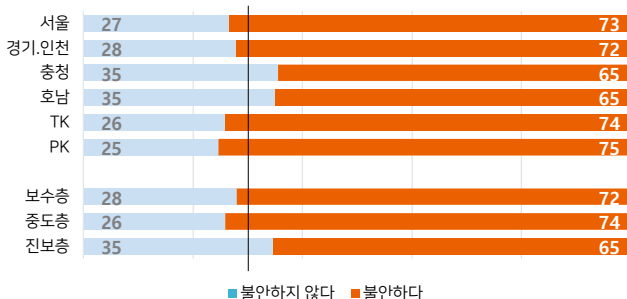
'삶과 미래' 불안 여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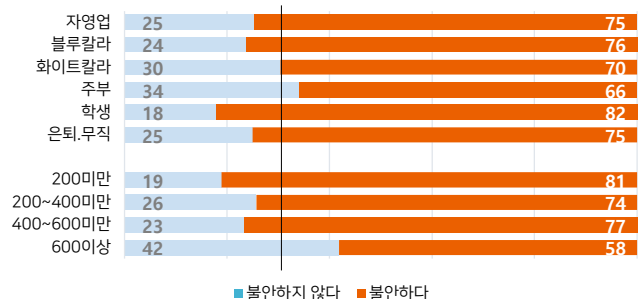
11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성/연령별 (자료:2021.11.07조사,단위:%)



11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11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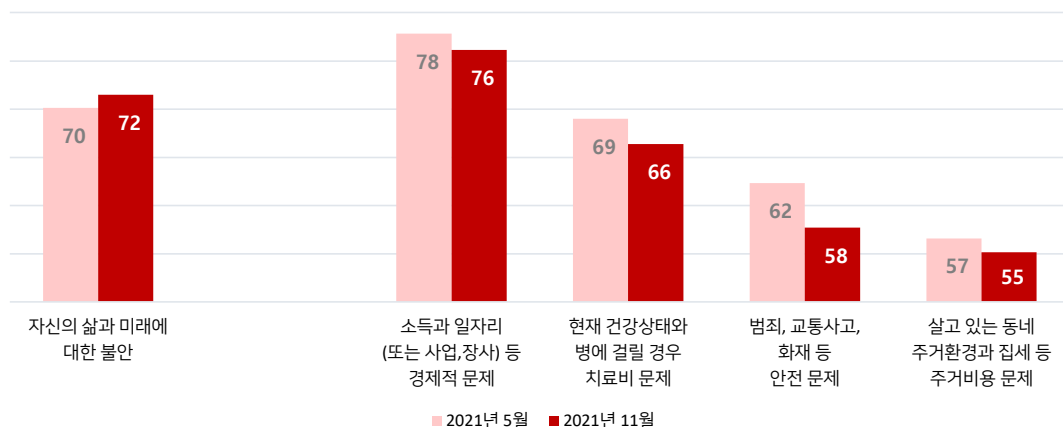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5월에 이어 11월 조사에서도 국민적 불안감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국민감정인 것으로 보임
- ☑ 특히 여자 2040세대의 높은 불안감이 주목됨
: 이는 남성중심적인 대한민국 사회질서가 이들 여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임

□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가장 높아

- 현대 국가들이 개인(즉, 국민)의 영속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 또는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영역은 '경제', '건강', '주거', '안전' 등 4가지 영역임
 -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고, 이러한 삶의 요소가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은 '불안감'을 느끼게 됨
- 이러한 4가지 삶의 영역별로 불안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5월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를 가장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됨 ('불안하다', 76%)
- 다음으로 불안감이 높은 영역 역시 지난 5월과 동일한데, '현재 건강상태와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문제'(66%),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58%), '살고 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55%) 순으로 나타남

'삶과 미래' 불안도 및 영역별 불안도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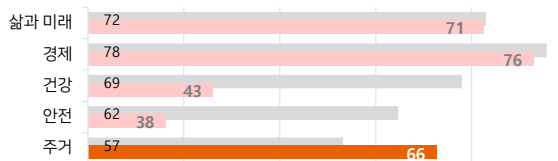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는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자, 삶의 기초임
- ☑ 대한민국은 이른바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음 : 국가가 부유하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이 부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 한편, 전 사회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음 :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가 '불안하다'는 국민은 55%이고, '불안하지 않다'는 국민은 45%임 : 이는 부동산 문제가 직접적인 주거 불안의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기반의 급격한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더 크다는 점을 말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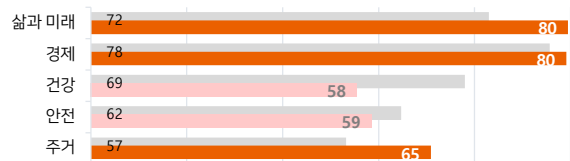
□ 불안감, 여자 30대 가장 높고, 남자 50대 가장 낮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안감이 높음
 -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가장 높은 성/연령대는 여자 30대이고, 불안감이 가장 낮은 성/연령대는 남자 50대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좌측 숫자는 국민전체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주황색 막대, 높으면 짙은 주황색 막대임
- 주거불안의 경우 남녀 2030세대에서 불안감이 높고, 5060세대는 불안감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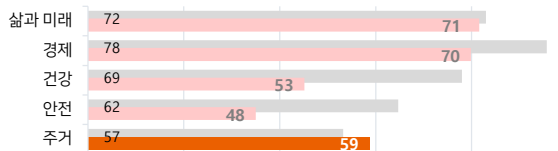
남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여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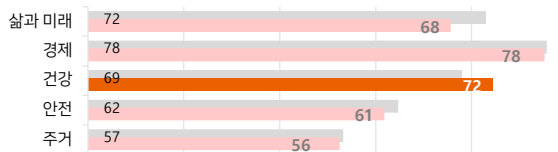
남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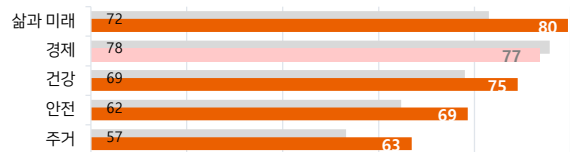
여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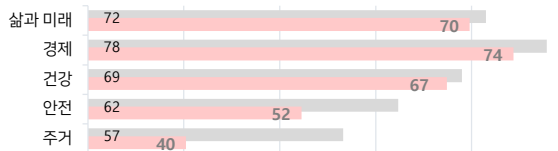
남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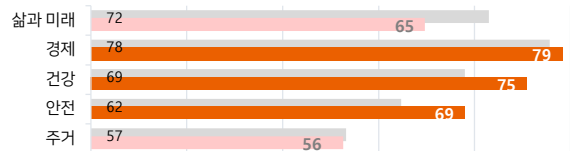
여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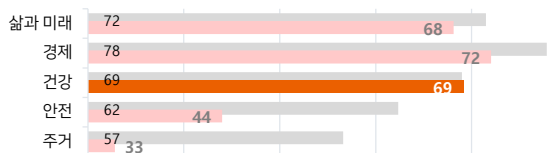
남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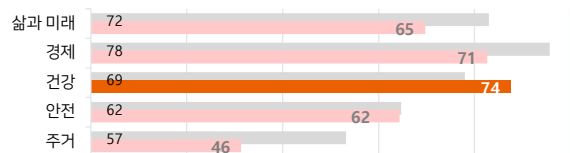
여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남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여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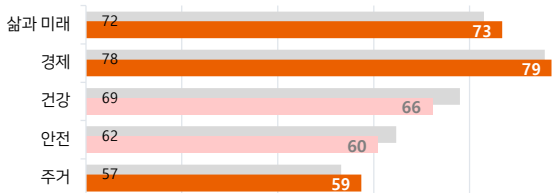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영역별 불안감에서도 여성층의 불안감이 높음
 - : 특히 경제적 삶(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
- ☑ 주목되는 지점은 주거 문제(살고 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에 대한 세대별 차이임
 - : 남녀 2030세대는 모두 주거 불안도가 높는데 비해, 남녀 5060세대는 불안도가 낮음 (40대는 남녀간 차이 존재)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을 통한 자산불평등 심화에 대해 2030세대의 불안과 반발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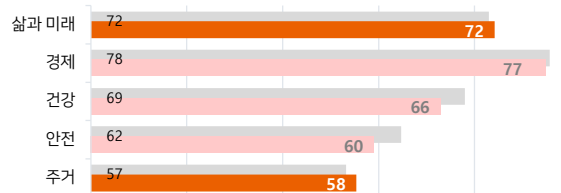
□ 불안감 높은 지역, 서울과 PK

- 불안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PK지역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좌측 숫자는 국민전체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주황색 막대, 높으면 짙은 주황색 막대임
- 서울은 삶과 미래와 경제,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고, PK 역시 같은 영역에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충청지역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TK와 호남 지역 역시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낮은 지역임
 - 충청지역은 모든 면에 걸쳐 국민전체 보다 낮은 불안도를 기록함
 - TK지역은 삶과 미래를 제외한 영역별 불안도가 국민전체 보다 낮고, 호남지역은 안전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불안도가 모두 국민전체 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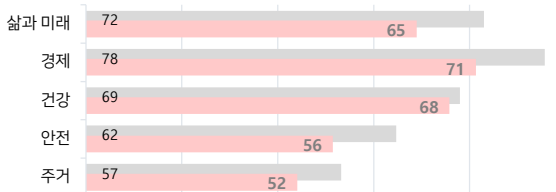
서울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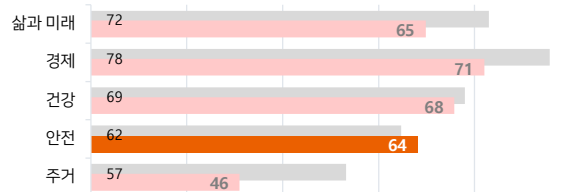
경기.인천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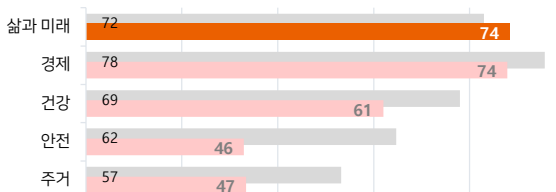
충청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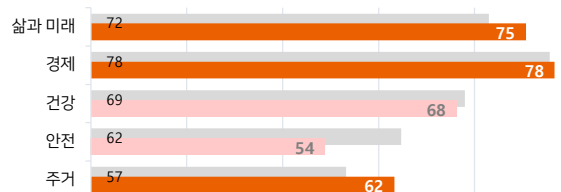
호남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T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P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



Kstat Point

- ☑ 서울은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비롯해 경제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서울은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처럼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꿈의 도시’지만, 실제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실정임
 - :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들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기회요인도 많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주거비용 등 지출 요인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 ☑ 주거문제 불안감은 서울, 부산 외에 경기.인천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음
 - : 경기.인천지역은 ‘수도권’으로 서울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주거타운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됨
- ☑ 한편, 충청지역과 호남, TK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낮은 지역으로 그만큼 행복도가 높은 지역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 스탓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케이 스탓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 스탓 리포트 40호] 발간 안내

케이 스탓 리포트 40호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집중 분석』이라는 주제로 11월 25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